

## 중소기업 C대 간담회

혁신전략의 주체로 중소기업이 서야한다

중소기업은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주체도 중소기업이고 경제발전 전략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습니다.

창조적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다.

최근의 경제논의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발전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전략 하의 고급기술 양성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기업이 시장을 형성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문제이며 발전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토론이 경제적 의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도 경제적 의제가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 친화적 상생의 경제를 협의해 나가자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력과 기술, 자금, 또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문제의 경우 근로자간 임금 격차 문제는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간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의 경제'를 위해 협의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 하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혁신과 마찬가지로 집중 지원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위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의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특히 R & D(연구개발) 지원 중 상당 부분을 인적 자원 양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계획중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나 외부적 충격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단기대책'을 추진하겠지만 희망도 없이 지원에 의해서 수명을 연장해 경쟁력 있는 다른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재정부 중심으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6월초 조사결과가 나오면 6월말까지 오늘 논의했던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